민주, 서울 박원순·경기 이재명·광주 이용섭 후보 확정

권리당원 투표·일반시민 여론조사 각 50%씩 반영

3곳 1위 후보 모두 과반 득표해 결선 없이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확정했다.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광주시장에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결정됐다. 3곳 지역 1위 후보가 모두 과반 득표를 해 결선 없이 공천이 확정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인 소병훈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6.13 지방선거 서울·경기·광주지역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66.26%, 박영선 의원이 19.59%, 우상호 의원이 14.14%를 얻어 박 시장이 최종 서울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경기도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59.96%, 전해철 의원이 36.8%,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3.25%를 얻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광주는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52.94%, 강기정 전 의원이 32.22%, 양향자 전 최고위원이 14.85%를 얻어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광주시장 후보로 결정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20일까지 경선을 실시했으며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반영했다.

소 의원은 이날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중 어떤 부분이 득표율에 영향력이 컸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당에서 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루 이틀 지나면 후보 측에서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현역일 경우 득표율에서 10% 감점되는 가감산(加減算) 적용에 대해 "모든 걸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가감산 부분은 다 공개가 돼 있느니 그걸 대입하면 원래 결과가 추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드루킹은 중간보스…유사 조직 더 있을 것"

"정상회담 만병통치약 아냐…文대통령, 드루킹 문제 답해야"

"경찰, 수사권 갖게 될 줄 알고 사냥개 노릇…사건 손 떼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후보 사무실에서 '시장 선거' 및 '드루킹 댓글공작'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22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 "드루킹은 중간보스 중 하나일 뿐이고 이런 조직이 최소한 대여섯 개는 더 있을 것이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안국동 미래캠프에서 열린 기자감담회에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홍보에 필요한 기사를 여러 사람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한 조직에만 모든 걸 맡겼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압수된 건 드루킹의 휴대폰이니 당연히 김 의원과 주고받은 메시지만 나와 있다"며 "만약 김 의원이 (이 의혹 제기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특검을 미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검찰에 출석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드루킹에 대해 모르는 척하고, 자발적인 정치참여라고 시치미 떼지만 하루가 다르게 추악한 범죄행위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 번 더 묻는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드루킹을 만났나"라고 했다.

그는 "제가 피해자라고 해서, 지난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거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것은 대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행위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청와대가 압박해 김 의원을 경남지사 출마를 강행하게 했다는 세간의 의혹에도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는 모양인데 국민은 북한이 실제 핵을 포기할 것인지를 차분하게 지켜볼 뿐 결코 흥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을 향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는 "검찰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려고 방관하고 있다"며 "경찰은 권력에 아부하면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줄 알고 주구(走狗)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 의원도 인정한 사실을 부인해 빈축을 사더니 갑자기 사과를 하고 수사하는 척하고 있다"며 "경찰의 행위가 수사라기보단 '증거 감추기'일 거라는 국민의 지적은 정당한 것이다. 경찰은 즉각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민주평화당 광주 4개 구청장 후보 등 확정

동구 김성환·서구 이성일·북구 이은방·광산 이정현

광주 지방선거 최초 선관위 위탁 "공정·깨끗한 경선"

민주평화당이 광주지역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자 경선 후보를 속속 확정했다.

구청장의 경우 5곳 가운데 남구를 제외한 4곳에 공천자를 냈다. 동구는 현직 청장인 김성환 동구청장, 서구는 이성일 전 호남매일 사장, 북구는 이은방 전 광주시의회 하반기 의장, 광산구는 이정현 전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을 후보로 확정했다.

광역의원은 ▲동구1 홍두석 동구축구협회장 ▲동구2 이재임 전 공무원 ▲남구2 김애정 전 남구의원을 후보자로 공천했다.

기초의원은 ▲동구 가 홍기월 ▲서구 가 김수영 ▲서구 나 오광록 ▲서구 다 이동춘 ▲서구 라 김옥수 ▲남구 가 남광인, 임순애 ▲남구 나 박용화 ▲남구 다 하주아 ▲북구가 이현수 ▲광산구 나 박병인 후보 등 11명으로 진영을 구축했다.

광주 지방선거 최초로 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는 광역의원 경선후보자로는 ▲북구3 김재찬, 임동빈 ▲북구6 허석진, 이병석 후보 등이다.

광주시당 선관위가 주관하는 기초의원 순위 경선후보자는 ▲북구 나 이상용, 최무송 ▲북구 다 김정원, 마광민 ▲북구 라 김태환, 이관식 ▲북구 마 양일옥, 최영규 ▲북구 바 강성훈, 유관운, 선승연 후보다.

경선은 4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선거운동을 펼치고, 28일 광주 북구 서산초등학교 강당에서 전 당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경환 공천관리위원장은 22일 "앞으로 추가 공천을 통해 경쟁력있는 후보자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이번 경선은 광주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 최초로 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는 경선인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발표에서 제외된 선거구의 경우 3차 추가공모를 통해 후보자를 확정키로 했다.

CNN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산가족 상봉 재개 희망 모락모락"

"80~90대 가족들 마지막 기회"

오는 27일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CNN이 22일 보도했다.

이미 80대 또는 90대에 이른 남북 이산가족들에게 헤어진 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이 정상회담이 이산가족 상봉이 재추진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CNN은 그러면서 실제 남한에서 살고 있는 실제 이산가족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동안 남한의 많은 정치인들은 지난 수년간 이산가족들을 위한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상봉 추진을 위해 문 대통령을 그렇게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다.

지난 2000년 이래 약 20회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며, 한번 상봉이 이뤄질 때마다 100여명의 이산가족이 만났다. 마지막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된 것은 지난 2015년이다.

우리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약 13만 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사망했고 생존자 평균 나이도 팔순이 넘어간다.

뉴시스